



3면

"민주당 쇠신에 최선을"
이낙연, 당대표 출마 선언

전주매일

2020년 7월 8일 수요일 (음 5월 18일) 제257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이 열린 7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아셈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영태영 수원시장,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장들이 탄소중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있다.

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송 지사, 생태문명·기후변화 대응 선도 역할 포부 환경부·지자체 실천력 결집... 전북 6개시군 포함

전북도는 범지구적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 코엑스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열린 이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에는 17개 광역자치체 모두가 참여했다.

또한 기초자치체로는 전북의 6개 시군(전주, 군산, 완주, 장수, 순창, 부안)을 포함한 전국 68곳이 참여했다. 세계적으로는 올해 5월까지 120개국, 407개 도시, 780개 기업, 27개 투자사 등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번 발족식은 탄소중립(Net Zero)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혁신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지방정부 간의 연대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아 이뤄졌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2050 탄소중립도시를 선언한 바 있으나 개별적 행동에 머물러 협력적 관계 구축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날 행사에는 조병래 환경

부장관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광역 및 기초 단체장 및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발족식에서는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환경부와 지자체 간 업무협약,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 및 향후 계획 발표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자체의 의지와 실천력을 결집했다.

탄소 제로화를 표방한 전북도는 그동안 탄소중립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과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온 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파리 기후변화 협약 체결로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2030년 국가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2018년 12월 전북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 전북 중심으로 비산업부문 감축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정부의 한강형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전북형 그린 뉴딜 계획을 마련해 기후변화 대응과 경기 부양 정책을 발굴해 추진 중에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자연과 함께 생

의 가치를 공유하고 조화를 이루는 생태문명적 차원에서 전북의 모든 정책을 구상해 추진하고 있다"며 "새만금을 예로 들면 친자연적 개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메카이자 농생명산업

의 전진기지, 전기가 수소산업의 비전 지역으로 가꾸면서 2030 새만금 세계 잼버리를 인류와 자연의 공존을 모색하는 생태문명의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디지털·그린뉴딜 정책 전주시, 예산확보 '발품'

간부들 기재부 총 출동, 사업 필요성·당위성 설득

전주시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디지털·그린뉴딜 정책 등 전주발전의 토대가 될 국가예산 확보에 나섰다.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간부공무원들은 7일 국가예산안을 심의 중인 기획재정부에 방문해 디지털·그린뉴딜 정책 등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펼쳤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국가예산안에 대한 1차 예산심의를 마친 상태로 오는 13일부터 2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김 시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경제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 복지안전심의관, 국유재산심의관 등에게 △전주 로파크 건립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안전속도 5000 시범도로 조성 △드론 산업혁신지원센터 장비 구축 △완산철봉 한빛마루 공영조성 △기저제어 어린이 생태체험장 조성 등 주요사업들

의 예산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김 시장은 전주형 디지털·그린뉴딜 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드론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드론산업혁신지원센터 장비 구축 예산과 교통사고를 줄이고 그린알리디로 창출할 수 있는 안전속도 5000 시범도로 조성예산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6일 세종사에서 최명규 전주시 부시장을 중심으로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추진하고 현장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지출구조조정 및 신규사업 억제 등 코로나 19로 인해 예산확보 여건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라며 "새로운 국회 상임위원 및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춰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성기자

'전북 농촌공감여행' 알뜰 여행족 유혹

여름 휴가철 숙박·식사·체험비 최대 50% 할인

전북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북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숙박, 식사, 체험 등 농촌여행 비용을 지원하는 '농촌공감여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도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도내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여름 휴가철에 맞춰 코로나19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전라북도 농촌마을에 소규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농촌공감여행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농촌공감여행은 도시민들이 농촌 여행을 통해 농촌의 가치를 깨닫고 농촌마을에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농촌여

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우수마을로 인증한 50개소 마을에 방문할 경우, 숙박·식사·체험 비용을 최대 50%까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전북도 농촌공감여행에 참여를 원하는 4인 이상 가족, 동호회, 학교, 기업 등 단체의 경우 "전라북도농어촌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jfcoar.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촌공감여행 참여 후 인증사진이나 휴가를 개인 SNS와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남기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농촌마을의

넉넉함을 더한다.

이번 전북 농촌공감여행은 활발한 도농교류를 통해 농촌과 도시가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전환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도농융합상생문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또한 다양한 방식의 캠퍼어를 통해 도시민이 원하는 농촌관광의 방향을 설정,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농촌공간을 휴식과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이미지를 변화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1천 8백여명의 도청원에게도 올해 여름휴가는 도내 숨은 아름다운 농촌마을을 찾아

가족과 함께 힐링의 시간을 갖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전북은 철저한 방역으로 타 지역보다 코로나19 발생빈도가 낮고 방역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 안전한 농촌마을이 최근에 각광받는 여행의 트렌드에 부합한다는 판단에서다.

도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지난해 전라북도 농촌관광명소를 선정하는 으뜸촌이 전국 최다 선정되는 등 농촌관광분야에서 전국 1위를 휩쓸었다"며 "가족이나 모임 등 소규모 관광객들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풍성한 전라북도 농촌마을에서 농업농촌의 가치를 느끼고 휴식을 즐기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제8대 후반기 익산시의회

새로운 시작!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의회

대안을 제시하는 화통 의회

한마음으로 섬기는 협통 의회

익산시의회
IKSAN CITY COUNCIL

